

## 우리 나라 가계의 생명보험료 지출 실태와 그 영향요인

김 경 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홍 정 하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주거학과 석사과정)

2001년 생명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가계의 82%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그 가계당 가입건수는 평균 3.6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계당 평균 가입액수는 연간 26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월평균 약 25만원의 지출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처럼 생명보험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계의 생명보험가입과 관련된 요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 조사자료에서는 소득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험이 기본적으로 미래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경제적 대비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어 소득이나 자산의 대체재로 간주되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에 대한 지출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혀보고자 인터넷 서베이를 통해 606명의 전국 주부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넷 조사의 특성상 응답자들은 주로 20대와 30대의 젊은 주부들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저축, 부채, 기타 자산상태 외에 주부의 연령과 자녀수, 교육수준, 주부의 취업유무 등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주부의 위험수용성향과 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불안정성 수준을 포함하여 회귀모델을 구성하고 각 요인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94.5%로 생명보험협회 자료보다 10% 남짓 높았으나 가계당 평균 보험료 지출은 23만원으로 생명보험협회 자료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델내의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녀수와 소득, 교육수준이 보험료 지출액과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주부의 위험수용성향이나 불안인지 수준, 가계의 자산수준, 주부 취업 유무는 보험료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다음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의 생명보험 지출은 위험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라는 본래 기능보다는 오히려 저축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생명보험 상품이 순수보장성 상품보다는 저축성과 결합된 상품 또는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상품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객관적인 지표상 가계 위험이 높은 사람보다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의 인지된 위험수준이 높다.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많고 만일의 경우 낮아질 생활수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